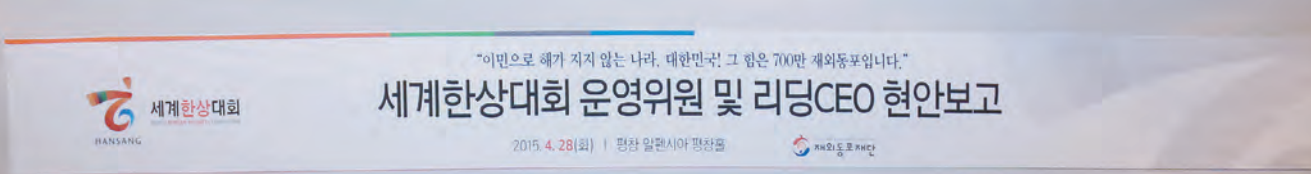




특집 _ 강원도 평창서 세계한상대회 운영위·리딩CEO 포럼 개최 10월 대회서 “차세대 거상 육성, 중소기업 해외 진출에 집중”
화제 _ 일제에 강제 동원된 것도 억울한데 전범 낙인찍힌 한국인 ‘전범 명예’ 쓴 피해자 모임 동진회 60주년



고려 시대의 물가 풍경 무늬 정병

은실로 새긴 한 폭의 풍경화



청동으로 만들어진 국보 92호 물가 풍경 무늬 정병(淨瓶)은 초록색 표면에 먼저 눈길이 간다. 청동이 부식된 녹이 정병을 더욱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기 때문이다. 정병 몸체를 보면 버드나무나 갈대가 자라는 섬들이 점점이 놓여 있고, 섬 주변 물가에는 새들이 여기저기서 헤엄치고 있다. 저 먼 하늘에는 줄지어 어딘가로 날아가는 새들이 보이고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있다.

마치 한 폭의 풍경화 같은 장면은 몸체에 흠을 낸 다음 얇은 은사를 그 안에 끼워 넣어 장식하는 은입사 기법으로 표현된 것이다. 지금은 은사도 녹이 슬어 검게 보이지만, 처음 만들었을 때는 어두운 바탕 위에서 하얗게 반짝이는 은사가 무늬를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을 것이다. 과연 고려시대를 대표할 만한 섬세한 금속 공예품이다.

인도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정병은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수행 생활을 하는 승려가 마실 물을 담았던 휴대용 용기였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늦어도 7세기 말쯤에



는 우리나라에 정병이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고려에서는 정병이 사찰뿐 아니라 민가에서도 널리 사용됐다. 불교 국가였던 고려에서는 일상적인 생활에도 불교의 영향이 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몇 점을 제외하면 현존하는 대부분의 정병들은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금속기뿐만 아니라 도자기로도 정병이 만

들어졌는데, 청자에는 다양한 문양이 여러 가지 기법으로 장식돼 있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청자 정병에는 음각, 양각, 상감 기법 등으로 문양을 새겼다. 문양도 연꽃, 국화, 모란, 넝쿨무늬 등 다양하다. **참**

1. 보물 344호인 청자 물가 풍경 무늬 정병

2. 국보 92호인 물가 풍경 무늬 정병



표지 이야기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한인 경제단체장과 한상(韓商) 리딩CEO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계한상대회 제26차 운영위원회' 및 '제27차 리딩CEO 포럼'에서는 국내 청년 해외 진출 활성화와 세계한상대회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 02** 한국의 열 고려 시대의 물가 풍경 무늬 정병
은실로 새긴 한 폭의 풍경화
- 04** 특집 강원도 평창서 세계한상대회 운영위·리딩CEO 포럼 개최
10월 대회사 "차세대 거상 육성, 중소기업 해외 진출에 집중"
- 06** 동포 소식 아르헨티나서 첫 중남미 한상대회 개최 외
- 09** 동포 캘린더 아시아 한인회장·한상 말레이시아서 모인다 외
- 10** 기획 차별 없는 자원 부족 노르웨이의 한인 사회
6·25로 첫인연, 조선업으로 협력증진
- 12** 화제 일제에 강제 동원된 것도 억울한데 전범 낙인찍힌 한국인
'전범 명예' 쓴 피해자 모임 동진회 60주년
- 14** 글로벌 코리아 미국 시카고에 한인 여성 사업가 진안순 씨 이름 딴 도로 명판 설치
모국 역사·문화 체험 이끈 재일한국청년상공인연합회 김정수 회장
영국 '주목할 디자이너 70명'에 선정된 한국인 이창희 씨
- 16** 지구촌 통신원 칠레 북부 지역의 수해 현장에 '한국의 정' 쇄도
한국 기업과 한인 동포들 지원 이어져
- 17** 동포정책 Q&A 재외동포 과세특례를 이용한 세금 정산과 환급
누진세율과 단일세율 중 비교 선택
- 18** 한민족 공감 차대통령, '기회의 땅' 중남미로 경제·외교지평 확대
중남미 붐 통해 '제2 한강의 기적' 도약 발판 마련
- 20** OKF 뉴스 미국·독일에 청소년 공공외교단 파견 외
- 22** 동포문학 나는 한국인이다
박준용 _ 중국 _ 2014 재외동포문학상 초등 부문 최우수상
- 23** 우리말 배워봅시다
- 24** 고향의 맛·멋 '명량' '광해' 촬영지로 이름난 부안 백합과 젓갈의 본고장
바다를 느끼게 하는 맛
- 26** 재단 공지

강원도 평창서 세계한상대회 운영위·리딩CEO 포럼 개최

10월 대회서 “차세대 거상 육성, 중소기업 해외 진출에 집중”



재외동포재단 주최로 4월 28, 29일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열린 세계한상대회 제26차 운영위원회 및 제27차 리딩CEO 포럼에서는 60여 명의 대표한상(韓商)이 참가했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조규형)은 4월 28, 29일 이틀간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한인 경제단체장과 한상(韓商) 리딩CEO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한상대회 제26차 운영위원회 및 제27차 리딩CEO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해 세계한상대회의 결과를 검토하고 올해 경주에서 열리는 세계한상대회(10.13~15)의 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세계한상대회는 재단이 2002년부터 매년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개최하는 한민족 비즈니스 네트워크 행사로,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는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 4천여 명이 참석해 모국과 동포기업 간의 동반 성장을 모색해왔다.

운영위에는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중국한국상회, 동남아한상연합회, 국제한인식품·주류상총연합회, 유럽한인경제인단체총연합회, 영비즈니스리더스네트워크 등 대륙별·업종별·세대별 동포 경제단체장이 참여했다.

28일 운영위 회의에 앞서 운영위원과 리딩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준비한 '국내 청년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세계한상대회 발전 방안' 주제 발표회가 열렸다.

29일에 열린 리딩CEO 포럼에서는 20명의 대표한상이 참여해 전날 주제 발표를 토대로 세계한상대회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함께 국내 청년의 해외 창업과 취업을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1



2

내년 대회 개최지는 10월 한상대회 기간에 열릴 예정인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행사에 참석한 운영위원과 리딩CEO들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지하고자 경기장 등 주변 시설도 둘러보았다.

“국내 청년 해외 진출, 동포 기업인이 돕는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청년의 해외 진출을 위한 선배 한상들의 조언이 잇따랐다.

박중호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알선팀장은 ‘국내 청년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이란 제목으로 발표에 나서 “국내 청년의 해외 취업 대상은 외국기업 다음으로 동포기업이 많다”며 “한국과의 연결 고리를 갖고 있으면서 현지화된 동포 기업은 청년 구직자들에게 매력적인 직장”이라고 소개했다.

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동포 기업이 국내 청년을 고용하는 것은 모국 사랑도 있지만 글로벌 인재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전제한 뒤 “국내에서 취업이 되지 않으니가 해외로 눈을 돌리겠다는 안일한 접근은 또 다른 취업 실패로 이어질 것”이라며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해외에서 성공한 한 명의 거상(巨商)으로 인해 수많은 고용 창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징검다리 역할 등 다양한 파급 효과를 불러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해외 인턴 채용이나 취업이 궁극에는 창업으로 이어져 차세대 거상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수포인트 분야 세계 5위의 기업을 이끄는 흥명기 미국 듀라코트 회장은 “1세대 한상은 대부분 낯선 땅에서 역경을 헤치며 기업을 일궈냈다”며 “이들의 비즈니스 경험을 고국의 청년들에게 전해주는 자리가 많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계한인무역협회 명예회장인 천용수 호주

KOAST 그룹 회장은 “동포 기업은 인재를 충원할 수 있고 청년들은 해외 진출을 통해 자신의 꿈을 크게 키울 수 있기에 상호 윈-윈”이라며 “동포기업이 요구하는 인력·소양·전공을 갖춘 취업 준비생을 적시 적소에 공급할 수 있는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문했다.

조규형 이사장은 “재능과 실력을 갖춘 청년의 해외 진출은 한민족의 큰 자산이 될 것”이라며 “동포기업을 통해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데 한상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재외동포재단은 올해 세계한상대회 기간에 ‘해외 취업 설명회’ 등 청년의 해외 진출을 돕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세계한상대회장에 인도네시아 송창근 회장 선출

운영위에서는 만장일치로 올해 세계한상대회 대회장으로 송창근(55) 인도네시아 KMK글로벌스포츠그룹(이하 KMK) 회장을 선출했다.

세계 신발업체의 ‘큰손’인 송 회장은 1988년 인도네시아로 건너가 단돈 300달러로 사업을 시작, 6개 계열사에 2만여 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그룹을 이룬 입지전적 인물이다.

KMK는 나이키, 컨버스, 헌터부츠 등 세계적인 브랜드 신발을 연간 3천만 켤레 생산해 2억 5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해외 인턴십을 통해 국내 청년의 해외 취업도 돕고 있다.

송 회장은 “700만 재외동포를 대표해 한상대회장으로 선출된 만큼 책임감·사명감을 갖고 모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한상대회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내비친 뒤 “차세대 한상 발굴·육성에도 힘쓰는 동시에 동포 기업과 국내 기업 간 비즈니스 가교 역할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

1. 이번 행사에는 60여 명의 대표 한상이 참가해 세계 한상대회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함께 국내 청년의 해외 창업과 취업을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2. 세계한상대회는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는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 4천여 명이 참석하는 한민족 최대 비즈니스 네트워크 행사다.

아르헨티나서 첫 중남미 한상대회 개최

중남미 지역 20개국의 한인 동포 경제인들이 참가한 제1차 중남미 한상대회가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내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열렸다.

이번 대회는 중남미 한상연합회(회장 최태훈)가 주최했고 재외동포재단, 아르헨티나 주재 한국대사관, 코트라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이 후원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추종연 아르헨티나 주재 대사, 이재훈 중남

미 한상연합회 수석부회장, 박종근 코트라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장, 중남미 각국 한인회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추 대사는 축사를 통해 “중남미는 세계 어느 지역보다 한국과 한



중남미 지역 20개국의 한인 경제인들이 참가한 제1차 중남미 한상대회가 열렸다.

국인, 한국 제품에 대해 우호적인 곳”이라면서 “중남미를 좀 더 적극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엄청난 비즈니스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개막식에 이어 아르헨티나 한인 기업 전시회, 각국의 성공 사례 발표회, 중남미 한상연합회 회의, 차세대 전문인 양성 사업 세미나 등이 열렸다.

2004년에 발족한 중남미 한상연합회는 2012년 10월 서울에서 ‘중남미 한상의 밤’을 열어 제1차 중남미 한상대회를 아르헨티나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중남미 한상대회는 올해 아르헨티나 한인 이민 50주년이라는 의미도 담았다.

워싱턴 한·미·중 시민단체 “아베 위안부 사죄하라” 연대 집회

워싱턴DC의 한국·미국·중국·대만 시민사회단체가 4월 23일 미 의회 레이번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역사 왜곡 및 위안부 강제 동원 부인을 강력히 규탄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직접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정실 워싱턴정신대대책위원회 회장, 워싱턴한인연합회 임소정 회장, 국제사면위원회(AI) 워싱턴지부의 티 쿠마 국제옹호국장, 데니스 헬핀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연구원, 아태지역 2차 세계대전 만행 희생자 추모회 제프리 천 회장, 대만참전용사워싱턴협회 스탠 차이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쿠마 국장은 “아베 총리는 아마도 이용수 할머니와 같은 용감한



워싱턴DC의 한국·미국·중국·대만 시민사회단체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역사 왜곡 및 위안부 강제 동원 부인을 강력히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분이 돌아가시면 모든 게 끝나고 사람들도 잊어버릴 것으로 생각해 ‘시간 벌기 작전’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는 큰 착각이자 실수”라고 역설했다.

중국계인 천 회장은 “일본 정부가 과거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를 거부하고 더 나아가 교과서 내용까지 변경하며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는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민약 아베 총리가 지금과 같은 길을 고수한다면 훗날의 역사에 의해 규탄될 것이고 또 주변국과의 갈등 악화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한국 언론은 물론 미국, 중국, 일본 언론이 대거 몰려들어 뜨거운 취재 경쟁을 벌였다.

케냐 동포들, 가리사 대학 테러 희생자 유족에 온정의 손길

케냐 동포들은 4월 8일 가리사 대학 테러 희생자 가족이 머무는 수도 나이로비의 시신 보관소를 방문, 정성스레 마련한 물품을 전달하고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했다. 케냐한인회는 이날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시신 36구가 안치된 나이로비 중심가의 '치로모 안치소'를 찾아 빵과 과자, 생수 등 물품을 전달하고 유족들이 하루빨리 시신을 찾아 장례를 치를 수 있기를 기원했다.

김병태 한인회장은 이날 물품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희생자들의 사연을 들은 동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정성을 모았다”며 “동포들의 성금을 모아 앞으로 서너 차례 더 물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케냐 동포들이 가리사 대학 테러 희생자 가족을 위로하며 정성스레 마련한 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지원에 이어 케냐 현지 선교사회, 한인교회, NGO(비정부기구) 직원 등을 중심으로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현장을 찾은 케냐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인들이 케냐 국민과 함께 슬픔을 나누는 모습에 감명받았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앞서 케냐 동포들은 사건 직후 이번 테러로 너무나 많은 인명이 희생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희생자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방법을

찾아보지며 SNS(사회관계망 서비스)를 뜨겁게 달궜다. 소말리아 이슬람 무장단체 알샤바브는 4월 2일 가리사 대학 캠퍼스에 총격을 퍼부으며 난입, 학생 142명 등 148명이 목숨을 잃었다.

스페인에 태권도 사범 '김영구 체육 단지' 들어선다

스페인에 한국 태권도 사범 이름을 딴 체육 단지가 조성된다. 스페인 동부 엑스트레마두라 주 카세레스 시는 4월 18일 체육관, 테니스장 등을 갖춘 대규모 종합 체육 단지를 조성하면서 '김영구 체육 단지'로 이름 붙였다.

이날 명명식에는 박희권 주스페인 대사, 엘레나 네바도 델 캄포 카세레스 시장, 현지 동포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김영구(65) 사범은 1979년 스페인에 이민 가 카탈루냐 주 태권도 대표팀 감독을 맡는 등 스페인에 태권도를 보급하기 위해 노력했다.

태권도 공인 9단인 김 사범은 현재 엑스트레마두라 주 태권도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한국을 위협할 정도로 태권도계의 강호인 스페인에는 선수와 일반인을 모두 합치면 태권도를 익힌 사람이 20만 명이 넘는다. 스페인을 대표하는 태권도 선수인 호엘 곤살레스 보니아는 2012년 런던 올림픽 남자 63kg급 결승에서 한국 태권도의 간판 이대훈을 물리



스페인에 한국 태권도 사범 이름을 딴 '김영구 체육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명명식을 열었다.

치고 금메달을 따기도 했다.

박 대사는 “김영구 체육 단지를 시작으로 우리 동포의 헌신과 노력이 결실을 보기 시작했다”며 이번 행사를 지원해 준 카세레스 시에 감사를 표했다.

한인 경제인 모여 구미시 중소기업과 동반 성장 모색

전 세계 68개국 135개 도시에 지회를 둔 최대 규모의 재외동포 경제단체 세계 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가 고국에서 개최하는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가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경북 구미시의 구미코(구미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사장 박노황),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 구미시(시장 남유진)가 '한민족 경제 네트워크 구축과 모국 경제 발전'이라는 주제로 공동 주최한 행사에서 한인 경제인과 구미시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동반 성장을 모색했다.

34개국 78개 도시에서 참가한 500여 명의 월드옥타 회원은 1천 261억 원에 달하는 수출과 투자 상담을 구미 지역 업체들과 진행했



월드 옥타가 주최한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가 4월 22일 경북 구미 구미코에서 열렸다.

다. 월드옥타 국제사무국에 따르면 대회 기간에 수출은 169건 84억 7천만 원, 투자는 2건 1천177억 원 규모의 상담이 이뤄졌다. 현장에서 계약을 체결한 액수도 1억 7천만 원에 이른다.

이번 구미 대회에서는 '청년 인력 해외 취업 상담회'도 열렸다. 미국, 일본, 호주, 아르헨티나 등지의 월드옥타 회원사가 구미 지역 청년 6명을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여권·비자 발급, 건강검진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취업이 확정

된다.

월드옥타는 전 세계 68개국 135개 지회에 6천600여 명의 회원을 둔 최대 규모의 재외동포 경제단체이다.

미 워싱턴대에 등장한 '추억의 7080 한국 만화방'

미국 워싱턴 주 워싱턴대학(UW) 한국학도서관 로비에 1970~80년대 한국에서 유행했던 '추억의 만화방'이 문을 열어 화제를 일으켰다. '유담(UW) 만화방'이란 간판을 내건 이 만화방의 서가에는 이현세·허영만·박봉성·고행석·황미나 등 과거 만화계를 주름잡았던 인기 작가들의 작품들이 채워졌다. 또 만화방에 구식 난로와 흑백TV도 설치됐으며 난로 위에 도시락, 양은 냄비, '뽕빠이' 등 옛날 과자까지 전시돼 추억을 되살렸다.

이 만화방은 워싱턴대학 한국학도서관이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마련한 만화축제 'K-만화: 종이에서 스크린까지' 행사의 하나로 문을 열었다. 40대 이상 한인들에게는 추억을 일깨워 주고, 만화방을 경험하지 못한 이민 1.5~2세대와 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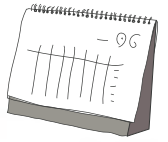


미국 워싱턴 주 워싱턴대(UW) 한국도서관 로비에 1970~80년대 한국에서 유행했던 '추억의 7080 만화방'이 문을 열었다.

인들에게는 한국 만화 문화를 알리려는 의도였다.

만화방 개장에는 이 대학에 재학 중인 한국 유학생과 교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나섰다. 오은지(조경학과 4년) 씨를 팀장으로 한 제작팀은 인터넷 등을 뒤져 1970~80년대 만화방을 그대로 재현했다. 당시 만화방에 붙어 있던 월간 만화잡지 '보물섬' 등 각종 만화책의 표지와 광고물 등을 프린트하고 추억의 과자는 한국에서 주문했다. 구식 난로와 흑백TV는 인터넷 중고 매매 사이트를 통해 구입했다.

이번 만화 축제에는 지난해 TV 드라마로 방영된 웹툰 '미생'의 윤태호 작가가 참석해 특강과 함께 한인 독자와의 대화 시간을 마련하고 팬 사인회를 벌였다. **황**



아시아 한인회장 · 한상 말레이시아서 모인다

인도네시아 · 필리핀 · 베트남 · 태국 · 싱가포르 · 캄보디아 · 인도 ·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19개국 한인회장과 한상들이 말레이시아에 모여 상호 협력과 상생의 길을 모색한다.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 동남아한상연합회(회장 승은호)는 6월 17일부터 나흘 동안 쿠알라룸푸르 겐팅 하일랜드에서 '2015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총회'와 제10회 동남아한상대회를 개최한다. 17일 환영 만찬, 18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총회와 동남아한상대회 포럼, 19일 세미나와 산업 시찰 등이 진행된다.

캐나다 동포들, 단오맛이 민속놀이 한마당

캐나다 동포들이 국내에서도 잊혀가는 명절 단오(端午 · 음력 5월 5일)를 되살리기 위해 '전통'을 주제로 대규모 축제를 연다. 23번째 단오제를 마련하는 '코리아타운 BIA'(Business Improvement Area · 이사장 제이슨 이)은 6월 5~6일 토론토 크리스티 공원에서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가 풍성한 단오맛이 민속놀이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음악 공연, 영화 상영, 사물놀이, 씨름, 윷놀이, 줄다리기, 제기차기, 투호 등 전통놀이 한마당을 펼칠 예정이다.

재미동포 청소년, 모국 농촌서 음악 재능 기부

미국에서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는 한인 청소년들이 재능 기부를 위해 모국을 찾는다. 재미청소년재능기부단(단장 이영신)은 8월 3일부터 8일까지 세종시에서 농어촌희망청소년오케스트라(Korean Young Dream Orchestra: KYDO) 세종지부 단원을 대상으로 '한미 청소년 음악 재능 기부 캠프'를 실시한다. 참가자들은 지난 3월 29일 발족한 재미청소년재능기부단 4기 단원으로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등 클래식 악기를 연주하는 중 · 고등학생과 대학생 인턴 지도교사 등 21명이다.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미국서 학술대회 개최

오는 7월 취임하는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의 김영수 차기 회장은 한미 과학자, 기술인, 기업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한미 과학기술학술대회(UKC)를 7월 29일~8월 1일 애들랜타에서 개최한다. 학자는 물론 정부 당국자, 기업 임원, 정책 입안자 등이 한자리에 모이는 학술대회에는 1천300여 명이 참가할 전망이다. 1971년 12월 미국 워싱턴DC에서 결성한 KSEA는 미국 대학과 연구소에서 과학, 공학, 의학 등을 공부하는 한국계 학생, 교수, 연구원 등 6천여 명의 등록 회원을 두고 있다.

미국 동부 4개 지역 영남향우회, 독도 탐방

호주, 미국 등지의 재외동포들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와 관련해 잇따라 규탄 성명을 낸 가운데 뉴욕 · 필라델피아 · 워싱턴DC · 메릴랜드 등 미국 동부 4개 지역 영남향우회가 독도를 적극 알리기 위해 '독도 탐방 여행단'을 꾸리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 향우회는 오는 6월 1일 출발해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독도와 울릉도를 비롯해 경주, 포항, 안동 하회마을 등을 돌아보는 탐방단을 모집하고 있다. 독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재외동포들이 단체로 독도를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 총선 대비해 재외국민 모의 선거 6월 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 4월에 열리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모의 선거를 실시한다. 전 세계 공관에서 6월 5일부터 11일까지 선거인 등록 신청을 받고 6월 29일 투표를 실시한 뒤 7월 8일에 개표한다. 2009년 선거법 개정으로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이 부여된 이후 2010, 2011년에 이어 3번째 모의선거다. 선거권은 700만 재외동포 가운데 한국 국적의 재외국민은 290만 명이고 이 가운데 만 19세 이상의 유권자는 208만 명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1

차별 없는 자원 부국 노르웨이의 한인 사회

6·25로 첫인연, 조선업으로 협력증진



2

한 국과 노르웨이와의 관계는 노르웨이가 6·25 전쟁 때 623명의 외과 야전 의무대를 파견해 우리를 도와준 것으로 시작된다. 노르웨이 육군은 전쟁이 한창인 1951년 4월에 참전해 미8군 사령부 직할대로서 현재 의정부 성모병원 인근에 이동 외과 병원을 6개월간 운영했다. 부상한 아군과 전쟁 피해 민간인 등을 치료했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복진하는 연합군을 따라 두 차례 이동, 1952년 7월~1954년 11월 동두천시 신천 변에 주둔했다. 당시 유물은 동두천시 자유수호평화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이 병원에는 노르웨이 의사와 간호사 등 623명과 한국인 60여 명이 근무했으며 적군을 포함해 9만여 명을 치료했다. 정전협정 이후 이 병원 근무자들은 '노르웨이 한국재단'을 설립, 전쟁고아들을 본국으로 입양했다. 휴전 후 노르웨이 의료진이 서울에 세우고 간 병원이 현재 국립의료원의 전신이다. 경기도 의정부시는 2013년 7월 25일 금오동 상록근린공원에서 노르웨이 참전 기념비 제막식을 열었다. 6·25 전쟁 때 노르웨이 육군 이동 외과 병원 주둔을 기념하는 비석이다.

노르웨이에 한국인이 거주하기 시작한 것 역시 한국전쟁과 연관이 있다. 전쟁 당시 미군부대에서 하우스 보이로 일하다 중상을 입은 이철호 씨가 담당 군의관에 의해 노르웨이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그곳에 계속 머물렀다. 1937년 충남 천안에서 태어난 이 씨는 전쟁 통에 가족과 헤어진 뒤 노르웨이에 정착한 최초의 한국인이다. 이후 조선 강국인 노르웨이의 조선 관

1. 4월 8일 서울 종로구 북촌에서 모국을 방문한 노르웨이 입양 동포와 가족이 골목길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2. 2014년 4월 25일 노르웨이 입양 동포와 가족 등이 '홀트 해외 입양 가족 전통문화 체험' 행사에 참가하고 있다.

련 기술자들이 한국 조선소에 감독관으로 파견됐다가 한국 여성과 결혼한 경우가 많다. 이들 노르웨이 남성과 결혼한 한국 여성이 증가해 한인 사회의 기초를 이뤘다. 그 외에 현지에 진출한 전문직 종사자들이나 의사, 여행업, 요식업 등 개인 사업자도 있다. 일부 학생들이 1년 기간으로 단기 연수를 가기도 했다.

노르웨이에는 2014년 현재 692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 중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는 440명이고 일반 체류자는 252명이다. 한인회는 1972년에 설립됐다. 1994년 이후 한국에서의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한인 사회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이곳의 한인들은 관광 알선업이나 관광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며 기반을 다졌다.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3위의 석유·가스 수출국인 노르웨이는 전통적으로 조선·해운 분야에서 독보적인 수준의 지식, 장비,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세계 1위의 조선국인 한국과 노르웨이가 조선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시켜 온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현대 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굴지의 조선 업체들이 노르웨이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근면하고 성실한 한인 입양인 모국 방문 늘어

‘노르웨이 한국인 1호’인 이철호 씨는 사업가로 성공했다. ‘라면왕’으로 불리는 그는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미스터 리’라는 브랜드로 한국 라면을 소개해 노르웨이인들을 사로잡았다. 이 씨는 광고와 방송 등에 직접 출연하면서 지명도를 높혀 노르웨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리는 유명인이 됐다. 현지 식품회사에 판매권을 넘긴 ‘미스터 리’는 라면의 대명사처럼 인식되며 여전히 90%대의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철호 씨의 일대기는 그의 셋째 딸인 언론인 이리나 리 씨의 손으로 재구성돼 국내에서도 출간됐다. 이 씨 부녀는 2011년 전기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 (지니넷 퍼냄)의 국내 출간에 맞춰 방한하기도 했다.

노르웨이와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노르웨이에 살고 있는 한인 입양인이다. 본격적인 한인 입양은 1960년대 초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약 8천 명이 입양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노르웨이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한인 입양인의 우수성을 칭찬한다. 근면하고 성실한 한인 입양인은 다른 어느 나라 출신의 이민자보다도 노르웨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인 입양인이 양부모 혹은 자녀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는 사례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어린 시절 노르웨이로 입양된 한인과 현지 가족을 2014년 4월 21일 거제 옥포조선소로 초청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 행사에는 톨비요른 홀데 주한 노르웨이 대사 부부와 노르웨이 입양 가족 60여 명이 참석했다. 4월 초에는 종로구와 홀트아동복지회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노르웨이 입양 동포와 가족이 관광 등 한국 문화 체험을 했다.

한글학교는 오슬로 국제학교에서 교과 과정 외의 활동으로 한국어 수업이 열린 것이 계기가 됐다. 교내 활동으로서 재학생들만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제한돼 있는 점이 아쉬워 1997년에 독립된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수업을 시작했다. 비영리 기관인 노르웨이 한글학교(교장 김혜경)는 동포 자녀뿐 아니라 노르웨이인도 대상으로 하며 3개의 어린이반과 7개의 성인반을 운영하고 있다. **창**



3



4



5



6

3. 1994년 2월 23일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경기의 한인 응원단 모습
4. 노르웨이의 ‘라면왕’ 이철호 씨가 2011년 5월 자신의 일대기를 다룬 책의 출간에 맞춰 모국을 방문했다.
5. 노르웨이 참전 용사와 유가족 등 30여 명이 2008년 7월 27일 경기도 동두천시 자유수호평화박물관 내 참전비를 방문,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6.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51년 6월 27일 한국전쟁에 참전한 노르웨이 병역선 관계자들을 불러 격려하고 있다.

일제에 강제 동원된 것도 억울한데 전범 낙인찍힌 한국인 '전범 명에' 쓴 피해자 모임 동진회 60주년



1

식민지 조선에서 일제의 포로감시원으로 동원됐다가 전범의 명에를 뒤집어쓴 이른바 B·C급 전범과 유족들의 모임인 동진회(同進會)가 '환갑' 을 맞았다.

한때 사형수 신분이었던 이학래(90·재 일본 동진회 회장) 씨와, 자신의 아버지가 처형된 강도원(77·재 한국 동진회 회장) 씨 등은 4월 1일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중의원 제2의원회관에서 결성 60주년을 기념하고 일본 정부에 사죄와 보상 입법을 요구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긴 세월 동진회를 지원해온 우쓰미 아이코(内海愛子) 게이센조가쿠인(惠泉女學園)대 명예교수 등 일본 시민단체, 학계 인사 100여 명이 자리했다. 후지타 유키히사(藤田幸久) 참의원(민주당)과 이케우치 사오리(池内沙織) 중의원(공산당) 등 국회의원 6명도 참석해 입법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올해 32살의 정치 신인인 이케우치 의원은 “주오(中央)대 재학 시절 (일본 내 군위안부 연구의 선구자인)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교수의 강의를 들은 것을 계기로 침략 전쟁과 식민지 지배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살아왔다”며 “여러분과 한마음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민주당 가미모토 미에코(神本美恵子) 의원은 3월 28일에 90세 생일을 맞이했던 이학래 회장에게 꽃다발을 선사하며 건강을 기원했다.

‘한국인 B·C급 전범’은 일제가 태평양전쟁 때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지의 연합군 포로감시원으로 투입했던 조선인 중 일본 패전 후 열린 연합군의 군사재판에서 포로 학대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148명을 말한다.

일본은 3천200여 명의 조선인들을 군속 신분으로 허위 모집한 후 포로 감시원으로 투입했고, B·C급 전범으로 지목된 한국인 148명 중 23명이 처형됐다. 이들은 한국에서도 긴 세월 ‘일제 부역자’ 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야했고, 전후 일본 정부의 국적 이탈 조치에 따라 일본 국적마저 상실했다. 동진회에 따르면 살아남은 이들 가운데 2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고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이들도 있다.

이학래 회장은 일제강점기에 포로감시원으로 태국에 끌려갔다가 전후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8개월간 사형수로 수용돼 있었다. 나중에 20년형으로 감형받았고 모두 11년간 구금돼 있다가 1956년 10월 가석방됐다. 식민지 조선인이었기에 일본인으로 전쟁에 동원됐음에도 종전 후 일본 국적을 박탈당하기까지 했다.

그는 한국인 전범이 일본의 강요에 의한 전쟁 피해자임을 인정받으려고 1991년 제소, 오랜 기간 법정에서 싸웠으나 승소하지 못했다. 그나마 1999년 일본 최고재판소가 한국인 전범이 ‘심각하고 막대한 희생, 손해를 봤다’ 며 문제를 해결할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시했고 이 회장 등은 시민단체와 힘을 모아 명예 회복과 피해 배상을 촉구해 왔다.

2008년 일본 민주당 정권 때 이들에게 특별교부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정연함국재판 피구금자 등에 대한 특별교부금 지급에 관한 법률안’ 이 제출됐다. 그러나 이 법안은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 1. 'B·C급 전범' 출신자 모임인 동진회의 이학래 회장
- 2. 이학래 회장(오른쪽)이 4월 1일 동진회 결성 60주년 기념행사에서 민주당 가미모토 미에코 참의원으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 3. 2014년 4월에 열린 한국인 B·C급 전범 문제 사전전에서 방문객이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현재 처형을 면한 한국인 전범 다수가 이미 사망했고 일본에는 이 회장 등 5명만이 생존해 있어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은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알리려고 한국인 전범 문제를 다룬 관련 사진을 모아 2013년 11월 서울과 2014년 4월 일본에서 각각 사진전을 열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진상 규명위원회'에 의해 전범이 아닌 강제 동원 피해자라는 인정을 받음으로써 최소한의 명예는 회복했지만 일본 정부로부터는 어떠한 사죄와 보상도 받지 못했다.

하루빨리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을 받은 뒤 동진회를 해체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 회장에게 이날 동진회의 '환갑 기념행사' 자체가 어찌 보면 비극이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긴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인사말을 하기 위해 힘겹게 마이크를 잡은 그는 "일본 정부가 스스로 부조리를 시정해 빨리(B·C급 전범 보상을 위한) 입법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이미 세상을 떠난 친구들의 원한을 다소나마 치유하고 명예 회복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 정부와 국회의 양식과 도의에 강하게 호소한다"며 "금년은 전후 70주년과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그리고 동진회 결성 6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이 기회에 오랜 현안을 반드시 해결하길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부연했다. **창**



GLOBAL KOREAN

미국 시카고에 한인 여성 사업가 **진안순** 씨 이름 딴 도로 명판 설치 “한인 사회가 인정받고 있다는 방증”



미국 시카고에 한인 여성 사업가 진안순 씨의 이름을 딴 도로가 생겼다.

미국 시카고에 한인 여성 기업가의 이름을 딴 도로가 생겼다. 시카고 시는 4월 2일 도심 북서쪽에 남북으로 난 길 ‘김블 애비뉴’의 ‘에디슨 스트리트’부터 ‘벨몬트 애비뉴’ 사이를 ‘앤 S. 진 웨이’ (Ann S. Jhin Way)로 부르기로 하고, 도로 명판 설치 행사를 열었다.

이 도로명은 시카고를 기반으로 30여 년간 기업 활동을 해 온 한인 여성 기업가 진안순(69·한국명 서안순) 씨를 기념하기 위해 붙여졌다. 진 씨는 미국 내 미용 재료 도매업체 최대

기업인 ‘지니 뷰티’ (Jinny Corp.) 최고경영자(CEO)로, ‘앤 S. 진 웨이’ 북쪽 끝에는 지니 뷰티 본사가 자리 잡고 있다.

시카고 시의회는 이곳(시카고 35지구)을 지역구로 하는 레이 콜론 시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도로명을 승인했다.

이날 행사에는 아이리스 마르티네스 일리노이 주 상원의원, 루이스 아로요·제이미 앤드레이드 주 하원의원, 드보라 맬 시의원, 시카고 총영사관 이재웅 부총영사, 중서부한인연합회 김길영 회장을 비롯한 한인사회 단체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진 씨는 “한인 사회가 인정받고 있다는 방증이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 한인들의 위상 제고와 권익 신장에 도움이 되고, 2세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다면 좋겠다. 앞으로 더 자랑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1969년 도미한 진 씨는 남편 진태훈(2006년 작고) 씨가 1981년 설립한 지니 뷰티를 2006년부터 맡아 10여 곳에 지사를 둔 전국적인 기업으로 키워냈다. 또 지역사회 봉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2010년부터 시카고 한인 비영리단체 ‘한미우호네트워크’와 함께 매년 연말 미 중서부 지역의 노숙자,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사랑의 점퍼 나누기’ 행사를 펼쳤다.

모국 역사·문화 체험 이끈 재일한국청년상공인연합회 **김정수** 회장 “한국계로서 정체성 확립이 중요”

“재일동포 차세대 기업인들은 일본서 나고 자라 뿌리내리고 살기에 한민족이면서 동시에 일본 사회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하고 조화롭게 사는 것을 중시합니다.”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재일 한국 청년 상공인 65명의 모국 역사·문화 체험을 이끈 김정수(44) 재일한국청년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재일 청년 기업인에게 한국과 일본은 어느 쪽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고 강조했다.

재일 3, 4세대인 청년 기업인들은 모국 이해를 돕고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 연합회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한 ‘재일 한국 청년 상공인 모국 방문’에 참가했다. 연합회는 전국 12개 지부에 회원 450여 명을 거느리고 있다. 회원들은 요식업, 호텔, 파친코, 부동산, 무역, 유통 등에 종사하는 기업 대표가 대부분이다.

김 회장은 “3세, 4세인 재일 차세대는 한국학교가 부족해



대부분 현지 학교에 다녔고 자연스럽게 일본인과 결혼하는 추세"라며 "이제는 국적을 유지하느냐보다는 한국계라는 정체성을 이어가는 것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달라진 재일 동포사회의 모습을 전했다.

야마구치(山口) 현 시모노세키(下關) 시에서 '마루타가 수산물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연간 41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김 회장은 "연합회는 국적을 불문하고 한국계이거나 한국과 비즈니스가 밀접한 일본 기업인에게도 문호를 열고 있다"며 "나만 잘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되기 위한 협력과 교류를 최우선으로 계속 펼쳐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재일 한국 청년 상공인 65명의 모국 역사·문화 체험을 이끈 김정수(44) 재일한국청년상공인연합회 회장

영국 '주목할 디자이너 70명'에 선정된 한국인 이창희 씨 소리를 시각과 후각으로 즐긴다



한국인 산업 디자이너 이창희 씨가 영국 정부기관인 디자인 위원회가 뽑은 주목해야 할 차세대 디자이너 70명에 선정됐다.

한국인 산업 디자이너 이창희(27) 씨가 영국 정부기관인 디자인위원회가 뽑은 '주목해야 할 차세대 디자이너 70명'에 선정됐다.

영국 디자인위원회는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아 소재와 일상생활 등 6개 디자인 부문에서 이 씨를 비롯한 70명을 '주목해야 할 디자이너'로 선정해 4월 2일 발표했다.

이 씨는 건반에서 연주되는 곡을 향기로 변환해주는 장치를 고안해 '현실의 재사유' 부문에서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피아노 건반 아래에 튜브 장치를 설치해 건반을 두드리면 공기가 튜브를 통과하면서 장치 아래쪽에 놓인 병에 향수 방울을 떨어뜨리도록 했다.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를 연주하면 음표마다 서로 다른 향기가 뒤섞이며 연주 공간에 퍼져 소리로만 전해지는 예술 작품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한 것이다.

그의 또 다른 작품 '노바' (Nova)는 촉감으로만 느낄 수 있는 열을 볼 수 있게 해준다. 알루미늄과 티타늄으로 만든 일종의 복사 난방 기구인 '노바'의 표면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에 의해 계속 반응하면서 팽창하는 열의 자연스러운 패턴을 보여준다. 금속과 열이 상호 조화를 이루면서 금속 표면에 축적된 색깔의 다양한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청동, 알루미늄, 티타늄, 구리, 강철 등 다양한 재료로 실험을 거듭하면서 열의 개념을 촉감이 아닌 시각으로 느끼게 하려는 의도로 작품 '노바'를 만들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 왕립예술학교(RCA)에서 한국인으로선 최연소로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이 씨는 2013년 이탈리아 'A 디자인 상' 공모전 동상, 2014년 미국 국제 디자인상 공모전 은상 등을 받았으며 세계적인 시각예술가 채프먼 형제의 런던 전시회에도 참여한 바 있다. **[창]**

칠레 북부 지역의 수해 현장에 ‘한국의 정’ 쇄도 한국 기업과 한인 동포들 지원 이어져



현대·기아차는 칠레 수해 지역에서 특별 정비 서비스를 시행하고 생필품을 전달했다.

칠레 수해 복구 지원 물품 전달식이 4월 18일 칠레 주재 한국 대사관의 유지은 대사, 칠레 외교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집중호우와 홍수로 큰 피해가 난 칠레 북부 지역의 수해 현장에 ‘한국의 정’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4월 18일 천막, 텐트, 물통, 정수제 등 10만 달러 상당의 국외 긴급 구호 물품을 전달했다. 구호 물품 전달식에는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의 유지은 대사,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KOICA)과 칠레 외교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유 대사는 이에 앞서 에랄도 무노스 칠레 외교장관을 만나 우리 정부의 뜻을 알리고 수해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의 뜻을 전달했다. 무노스 장관은 칠레 정부를 대표해 “한국 정부와 국민에 감사하며 인도적 지원을 통해 양국 간 우호 협력이 더욱 깊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해 복구 현장에는 그동안 한국 정부 외에 한국 기업과 한인 동포들의 지원이 이어졌다. 국제구호개발 단체인 굿네이버스는 기저귀와 소독용 알코올 젤 등 3만 달러 상당의 현물을 지원했고, 칠레 한인회는 500만 칠레 페소(약 980만 원)를 구호 성금으로 냈다.

삼성전자 칠레 법인은 칠레 통신교통부의 공식 요청에 따라 50인치 LED 스마트TV 30대를 전달했다. 삼성전자 칠레 법인은 또 침수된 가전제품을 서비스센터에 가져오면 무료

로 수리해 주고, 일부 지역에는 제품 수리 시설을 갖춘 서비스 트럭을 보내 지원했다.

현대·기아차는 현지에 정비 인력을 파견해 차량 성능 점검, 피해 차량 무상 세차, 견인 서비스 등 특별 정비 서비스를 시행하는 한편 이재민이 된 현지 주민들에게 생수, 우유, 위생용품, 기저귀 등 기초 생필품을 지원하는 긴급 구호 활동을 펼쳤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재해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긴급 정비 인력 파견과 특별 점검 서비스, 긴급 생필품 제공 등으로 신속하게 피해 복구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칠레 승용차 시장에서 판매 실적 2위와 3위를 각각 차지할 정도로 현지에서 인지도가 높다.

4월 6일 칠레 언론에 따르면 수도 산티아고에서 북쪽으로 800km가량 떨어진 아타카마 지역에서 집중호우와 홍수로 26명이 사망하고 120여 명이 실종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1만 4천 가구 이상의 가옥과 전력 시설 등이 파손됐다. 안토파가스타 등 북부 지역 10여 개 도시에서 3만 명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수해로는 80년 만에 가장 큰 규모라고 당국은 밝혔다. **▶**

재외동포 과세특례를 이용한 세금 정산과 환급 누진세율과 단일세율 중 비교 선택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

최 근 연말정산과 관련해 체감 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13월의 세금 폭탄' 논란을 불러오자 정부가 4월에 연말정산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말정산을 못 했거나 잘못 정산한 경우 5월 1일 시작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다. 재외동포 중에서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로 납부한 경우라면 과세특례 등을 활용해 세금 정산과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한국 국적이 없는 재외동포와 외국인 근로자에게 17% 단일세율 선택,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의 특례가 적용되지만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액 공제 등의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런 점을 유의해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외동포는 국내 근로소득자와 똑같이 6~36%의 누진세율을 적용한 연말정산을 할 것인지, 17%의 단일세율을 적용한 연말정산을 할 것인지 잘 따져보고 2가지 방법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재외동포나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 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된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통상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지는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비거주자로 분류된다. 그 외에 일반적으로 많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국세청은 재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www.nts.go.kr/eng)를 통한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제공, 외국인 전담 상담 전화(☎1588-0560)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Q&A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지불한 의료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가?
공제가 불가능하다.

국외에서 취학 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 등의 공제 여부는?

국의 소재 학원 등은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보육 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이 아니어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외 자산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의 공제가 가능한지?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한 단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공제받을 수 없다.

단일세율(17%) 적용 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과세 소득인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연말정산에서 빠진 소득공제 항목을 그 후에 공제받을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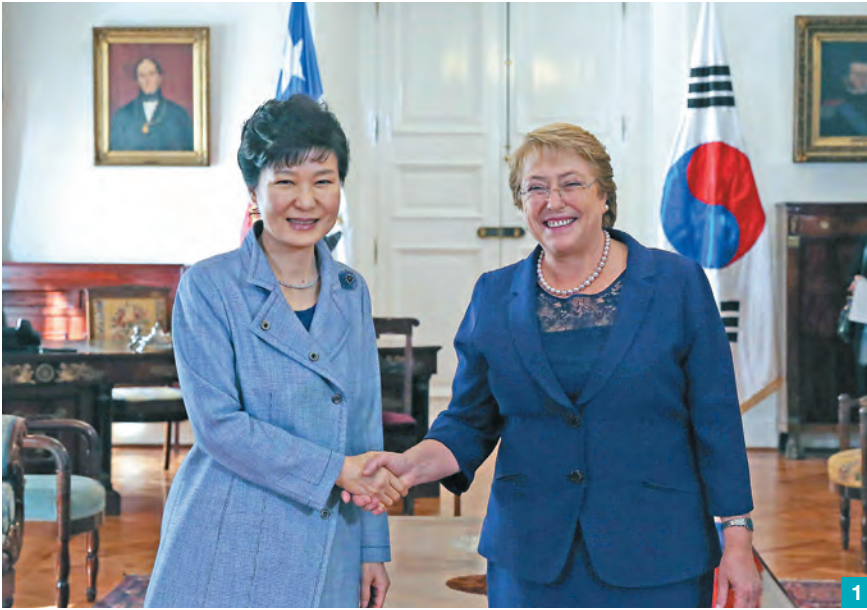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때 또는 5년 이내 담당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다.

원어민 교사의 일반적인 면세 요건은?

원어민 교사의 면세 요건은 조세조약을 체결한 나라마다 달라 개별 조세조약을 검토해야 한다. 미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인가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대학이나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강의 또는 연구를 할 경우엔 면세가 가능하다.

朴대통령, '기회의 땅' 중남미로 경제·외교지평 확대

중남미 붐 통해 '제2 한강의 기적' 도약 발판 마련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중남미 순방(4월 16~27일)은 지구 반대편 지역까지 정상외교의 네트워크를 확장함으로써 '기회의 대륙'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과 고부가가치 창출, 공동 시장 구축, 지식과 경험 공유의 파트너십 구축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남미까지 정상외교 지평 확대... 예외적 환대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찾은 중남미에서 다차원적 협력을 이루는 계기를 만들며 아프리카를 제외한 전 세계 모든 곳으로 정상외교 지평을 넓혔다.

기존의 정부와 경제·통상 중심의 관계에서 방산·치안·전자정부·보건의료·교육 인적개발·문화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분야로 상생협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 큰 성과다.

아울러 순방 상대국 정상들은 박 대통령에 대한 예외적인 호의와 예우를 보내며 협력 의지를 드러냈다.

페루의 경우 박 대통령의 도착 장면을 생중계하는 한편 국산 다

목적 고등훈련기(FA-50)의 수출 전망을 밝게 한 국산훈련기 공동 생산 기념식 등 4차례의 행사에서 의장대가 우리말로 애국가를 제창했고, 브라질이 공항 도착 후 숙소까지 헬기를 동원한 '입체경호'를 제공한 것이 단적인 사례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특히 페루 대통령은 박 대통령이 떠난 뒤 주페루 한국대사를 이례적으로 불러 우리 측 방문 평가를 물어보는 한편 한국 의약품에 대한 위생선진국 지위 부여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즉시 재가해 관보에 게재하는 등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전자상거래·원격의료 '지구 반대편' 진출 교두보

이런 가운데 각종 경제성과도 풍성하게 도출됐다. 주요 경제성과는 ▲고부가가치 중심 맞춤형 진출 ▲전자상거래 교역 기반 확대 ▲중남미 청년인력 진출 교두보 마련 ▲중남미 원격의료 시장 진출 ▲1대1 상담회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혜택 창출 등이다.

고부가가치 중심 맞춤형 진출은 우리나라의 경제혁신 3개년 계

획과 순방 상대국이 추진하는 미래성장전략이 맞아떨어진 점이 그 배경이다.

안중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들 국가는 우리의 높은 기술력과 IT 중심 인프라 구축에 대한 협력을 희망했다”며 “4개국 합계 78건의 MOU가 서명됐는데 분포를 보면 ICT, 창조경제부터 창업 인적교류, 전통적 건설 분야까지 다양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협력에 대해 안 수석은 “지구 반대편을 관통하는 신물류 유통채널을 확보했다”고 표현했다.

남미의 주요 유통기업 6곳과 순방 계기에 전자상거래 MOU를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5년 내에 연(年) 3조 원 이상의 수출 성과가 기대된다고 안 수석은 밝혔다.

중남미 청년 인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 것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 브라질에 ‘케이-무브 센터’를 설치하기로 한 것과 칠레의 세계적 벤처 창업 성공모델인 ‘칠리콘밸리(칠레+실리콘밸리)’에 청년 창업가를 파견하기로 한 것, 칠레와 중남미 및 스페인어권 국가 최초로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한 것 등이 대표 사례다.

가천길병원과 페루 카예마노병원 간 원격의료 MOU, 한양대병원과 브라질 상파울루병원의 원격의료 협력 MOU, 우리 정부와 브라질 정부의 스마트병원선(船) 원격의료 기술개발 협력 MOU 등으로 중남미 원격의료 시장에 진출하게 된 것도 규모가 12조 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성장 잠재력이 매우 커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4개국 모두를 돌며 열린 현지 기업과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1대1 비즈니스 상담회 결과, 72건의 상담에서 7천억 원의 실질 성과가 기대된다는 점도 청와대가 꼽은 주요 경제성과다.

안 수석은 “한마디로 대박을 터트렸다. 중동보다 많은 경제사절단이 참여해 상담에 참여한 중소기업도 훨씬 늘었고, 계약건수도 더 많아졌다”며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통한 수익 증대는 결국 국내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FTA 등 ‘경제영토’ 확장 모색

박 대통령은 FTA를 통한 경제영토 확대를 모색하는 데도 주력했다.

첫 방문국 콜롬비아에서는 이 나라 헌법재판소의 헌법합치성 검토 때문에 지난 2013년 2월 체결됐음에도 아직 발효되지 못한 한·콜롬비아 FTA와 관련,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으로부터 “간단한 절차만 남아있어 조만간 승인돼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언급을 끌어냈다.

우리와 이미 FTA를 체결한 페루, 칠레에서도 박 대통령은 그간



변화된 통상환경에 맞춰 양국 FTA의 활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 방문국 브라질의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과는 양국이 보유한 FTA 네트워크를 결합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브라질 주도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와 전 세계 GDP 73.5%의 경제권과 FTA 네트워크를 맺은 한국이 공동시장을 구축, 브라질은 아시아에, 한국은 중남미에 각각 진출하는 기반을 세우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회원국인 페루, 칠레와는 한국이 TPP 참여 결정 시 필요한 정보 공유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았다.

“동포사회는 고국의 글로벌 전진기지” 격려

박 대통령은 첫 방문지인 콜롬비아의 보고타 시내서 동포 간담회를 열고 “모두 힘을 합해 한인회관도 이미 마련하고 동포끼리의 단합, 화합은 물론이고 나아가 콜롬비아의 참전용사들과 같이 체육대회도 열고, 그 후손을 지원한다는 소식에 참 애국자라란 생각이 들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칠레 방문시 수도 산티아고에서 한인회를 초청해 “동포사회는 고국의 글로벌 전진기지가 되고, 고국은 동포사회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선순환이 이뤄질 때 우리 모두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며 동포 사회 역할을 강조했다.

페루서 열린 한인 간담회에서는 “40여 년 전 10여 명의 병아리 감별사가 처음으로 정착하며 탄생한 페루 동포사회가 이처럼 놀라울 정도로 성장한 것은 여러분이 남몰래 흘린 땀과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라며 “동포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브라질 순방시에는 중남미 패션 한류의 확산에 기여하려고 상파울루에서 열린 한·브라질 패션쇼와 유명 K-팝 그룹의 공연으로 구성된 문화행사에 참석했다. **[장]**

1. 박근혜 대통령이 4월 22일 칠레 산티아고 대통령궁에서 미첼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과 사전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 박근혜 대통령이 4월 24일 브라질 상파울루 산업연맹에서 열린 한-브라질 비즈니스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3. 박근혜 대통령이 4월 18일 콜롬비아 보고타 내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전 참전 용사 및 가족들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4. 박근혜 대통령이 4월 25일 오후 상파울루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브라질 동포 오찬 간담회에 참석, 입장하며 교포 어린이들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미국·독일에 청소년 공공외교단 파견



'2015 OKFriends 대한민국 청소년 공공외교단'이 지난 4월 6일 독일 에센에 자리한 파독광부기념회관을 방문했다.

재외동포재단은 국내 청소년이 재외동포와 교류할 수 있도록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4월과 8월에 진행한다.

'2015 OKFriends 대한민국 청소년 공공외교단 연수'는 중·고교생과 대학생 45명이 참가해 미국과 독일의 한인 사회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4월 5일부터 14일까지 청소년 참가자 등 18명은 독일을 방문했다. 이들은 1960~70년대 독일로 파견된 광부 등 한인 이주 역사를 공부하고 한글학교 자원봉사, 독도 알리기 캠페인 등으로 민간 외교관 역할도 맡았다.

동포재단 관계자는 "국내 청소년이 재외동포 청소년과 교류하며 인맥을 쌓고 서로 이해하도록 해 세계 각국으로 이어진 한민족 네트워크를 넓히려는 취지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재단은 오는 8월 19일부터 27일까지 미국으로 공공외교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차세대 한상들, 고려인 돕는 '꿈꾸는 교실' 1호 지정

차세대 재외동포들이 국내외에 흩어져 사는 고려인 동포를 돕는 후원자로 나섰다.

재외동포재단과 국내외 차세대 기업인 모

임인 'YBLN'(영 비즈니스 리더 네트워크)은 4월 16일 광주광역시 고려인 대한학교인 새날학교를 '한상(韓商) 꿈꾸는 교실' 1호로 지정했다.

동포재단과 YBLN은 이날 오후 새날학교에서 고려인 동포와 교사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열고 고려인 청소년의 음악 수업에 필요한 디지털 피아노, 우쿨렐레, 기타, 하모니카 등 1천800만 원 상당의 약기를 기증했다.

이번 후원은 YBLN 회원인 김민수 삼익악기 대표의 제안에 따라 삼익문화재단과 고려인마을 공동체인 (사)고려인마을이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삼익문화재단은 협약에 따라 4년제 대학이나 음악 관련 학과로 진학하는 고려인 청소년에게 장학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동포재단은 고려인 동포와 국내외 후원기관을 연계해주고, 재외동포 교육용 자료를 기증한다.

동포재단과 YBLN은 새날학교에 이어 '한상 꿈꾸는 교실' 2호를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사회에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YBLN 관계자는 "오는 7월께 알마티를 방문, 현지 고려인협회와 후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강제 이주의 아픔을 가진 고려인 동포를 돕기 위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현지로 '꿈꾸는 교실'을 확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동포재단 김영근 사업이사는 "'한상 꿈꾸는 교실'을 연결 고리로 삼아 세계 각국의



YBLN(영 비즈니스 리더 네트워크)은 4월 16일 광주광역시 고려인 대한학교인 새날학교를 '한상(韓商) 꿈꾸는 교실' 1호로 지정했다.

한상 기업인들이 재외동포를 위한 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YBLN은 동포재단이 매년 개최하는 세계 한상대회를 계기로 모인 국내외 차세대 기업인 네트워크로, 31개국 167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조규형 이사장, CIS서 고려인 동포 간담회



조규형 이사장은 4월 8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2015 세계한인회장대회 1차 운영위원회'에 참석했다.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4월 6~13일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돌며 고려인 동포와 간담회를 열었다.

조 이사장은 6~8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2015 세계한인회장대회 1차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올해 계획을 논의했다.

이어 9~10일에는 키르기스스탄에서 고려인 동포와 간담회를 열어 현안을 청취하고, 동포재단이 지원한 현지 영농센터를 시찰했다. 11~12일에는 카자흐스탄의 최초 고려인 정착지인 우수투베를 방문해 동포 사회 현황을 파악했다.

재외동포 겨냥 피싱 사이트 등장...“주의 당부”

재외동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피싱 사이트가 등장해 관계 기관이 차단 조치에

착수했다.

4월 10일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동포재단이 운영하는 재외동포 포털 사이트 '코리안넷' (<http://www.korean.net>)을 사칭한 피싱 사이트가 적발됐다.

피싱 사이트의 첫 화면은 원본 사이트의 문구, 디자인 구성 등을 교묘하게 베껴 접속자가 자세히 보지 않고서는 구분하기 어렵다.

피싱 사이트 주소도 'www.koreannet.cf' 등으로 원본 사이트와 흡사하다.

피싱 수법은 동포재단이 보낸 것처럼 가장한 이메일을 무작위로 발송해 수신자가 이를 클릭하면 가짜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수신자는 PC가 악성 코드에 감염되지 않도록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고 이메일을 삭제해야 하며, 로그인이나 개인정보 입력도 하지 않아야 한다.

동포재단은 관계 기관에 피싱 사이트를 신고하고 차단 조치에 착수하는 한편 홈페이지에 공지문을 올려 이용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동포재단 관계자는 “재단의 장학 사업 등을 안내하는 것처럼 가장한 이메일을 보내 수신자를 속이는 수법으로 보인다”며 “경찰청의 파밍(Pharming : 악성 코드에 감염시킨 뒤 피싱 사이트로 유도하는 금융사기 수법) 방지 프로그램인 ‘파밍랩’ 등을 즉각 설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코리안넷은 재외동포 민원 사례, 관계 법령, 교육·지원 사업, 문화 행사 등을 소개하는 종합 포털 사이트다.

올해 첫 자문위원회 열어 신규 사업 논의

재외동포재단은 4월 23일 2015년도 제1차 자문위원회를 열어 재중동포 특별지원



재외동포재단은 4월 23일 서울 중구 코리안호텔에서 '2015년도 제1차 자문위원회'를 열었다.

사업과 재미동포 정치력 신장 사업 등 올해 신규 사업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서울 중구 코리안호텔에서 열린 회의에는 박관용 자문위원장을 비롯한 11명이 참석해 통일 과정에서의 재중동포 역할과 미주 한인의 정치력 신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규형 이사장은 “19세기 영국이 세계를 제패하며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면, 21세기 대한민국은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로 인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며 “700만 재외동포가 국가의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 중·러·CIS 동포 장학생 선발

재외동포재단은 동포들의 학업을 지원하고자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최근 밝혔다.

재외동포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거주국에서 학사나 석·박사 학위를 받아 현지 주류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취지다.

올해는 중국 70명, 러시아를 비롯한 독립국가연합(CIS) 70명 등 140명을 선발한다.

중국·러시아·카자흐스탄 장학생에게 연간 1천200달러, 기타 지역에는 1천 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나는 한국인이다

박준용 중국 | 2014 재외동포문학상 초등 부문 최우수상

9살이 되던 새해 첫 날, 나에게서 큰 고민이 있었다. 4살 때 중국에 온 나는, 9살이 되면서 한국에 살았던 시간보다 이곳에서 있는 시간이 더 많게 된 것이다. 나에게서 나보다 5살 많은 형과 3살 많은 누나가 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형과 누나는 한국에서 살았던 날이 나보다 많은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나 혼자 중국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에 빠졌다. 모두 '희망찬 새해'라고 했지만 나에게서 슬픈 새해였다.

11살이 된 지금, 난 아직도 중국에 산다. 한국보다 중국에서 보낸 시간이 훨씬 많지만, 나는 여전히 한국 사람으로 살고 있다.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은 언제나 변하지 않은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진짜 기뻐했다. 혹시 한국인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 생각해볼지 못한 사람들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좋은지 아마 모를 것이다. 나는 한국인이라는 것이 참 좋다. 이유는 정말 많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흔적을 찾을 때가 더욱 그렇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은 항저우다. 나는 역사를 좋아하는 편이지만 하지만 처음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 잘 몰랐다. 그런데 얼마 전에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가보고, 또 항저우 임시정부에도 가보고 나서 궁금한 것이 생겼다. 우리나라 정부가 왜 '임시'라는 이름으로 두 개나 있어야 했는지 말이다.

형과 누나는 내게 1919년 3·1운동 이후 상하이는 외국 기관들이 많아서 우리나라가 외교 활동하기 편해 그곳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웠다고 알려줬다.

여러 독립운동가들 모두는 존경할 만하지만 나는 특히 김구 선생님과 윤봉길 의사를 좋아한다. 나는 '백범일지'라는 김구 선생님의 책을 읽었는데, 김구 선생님과 윤봉길 의사가 마지막 아침 식사를 함께 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세상에서 1시간 이후에 필요 없는 윤봉길의 시계를 받은 김구 선생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눈물이 날 것 같다.



윤봉길 의사가 흥커우에서 폭탄을 던진 일로 상하이 임시정부는 피난을 가야 했다. 그래서 1932년에 임시정부가 항저우로 옮겨왔다. 대한임시정부는 서호 주변에 큰 건물과 화려한 백화점들 사이에 있다. 나는 이런 곳에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것은 중국에서도 우리의 독립정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임시정부는 중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자랑이다.

임시정부에 가면 기분이 이상해진다. 한국 사람은 바닥이 따뜻한 것을 좋아하는데, 난방도 안 되는 이런 방에서 생활하게 좀 많이 쓸쓸하고 힘들었을 것 같다. 김구 선생님의 방은 작고 햇볕도 잘 안 드는 방이었지만 그래도 김구 선생님은 이곳을 좋아했을 것 같다. 작고 허름해도 대한민국이 살아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임시'는 '잠깐'이라는 말이다. 나중에는 우리의 영원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뜻

이 느껴졌다. 그렇게 계속 옮겨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일본이 괴롭혀서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일본에게 잡히지 않았다는 것이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계속 있었고, 1945년에 대한민국은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해방됐다.

중국의 가장 유명한 인터넷 사이트 '바이두(baidu)'가 있다. 우리가 죽은 거기에 김구 선생님의 사진이 잘못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안두희' 설명과 이름 아래 김구 선생님의 사진이 있었다. 우리 형제는 힘을 합쳐 바이두에 편지를 썼다. 바이두에서는 결국 잘못된 김구 선생님의 사진을 내려주었다. 나도 우리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할 거다. 나도 이런 독립운동가들처럼 대한민국을 빛내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내 꿈이다.

임시정부도 작고 우리나라도 작지만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의 꿈과 마음은 컸던 것 같다. 작은 고추가 맵다고 했다. 독립운동가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다. 그들은 영원히 내 마음속에 있을 것이고, 나는 죽을 때까지 한국 사람으로 사는 것을 행복해할 것이다. **장**

바른 말 고운 말

눈살 / 눈썹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큰 소리로 통화를 하거나 다리를 짹 벌리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흔히 마음에 안 들고 못마땅해서 양미간을 찌푸리는 것을 가리켜서 '눈살을 찌푸린다'고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눈살'이라는 것은 바로 두 눈 사이에 있는 주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눈살'이라는 것을 글자로 표기할 때 발음과 마찬가지로 '눈쌀'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눈살'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눈살'이라고 쓰고 발음은 [눈쌀]이라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주름이 잡힌 금을 나타내는 말인 '주름살'도 '주름쌀'이라고 쓰고 발음은 [주름쌀]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눈썹'은 [눈썹]이라고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처럼 쌍시옷을 쓰는 '썹'을 써서 '눈썹'이라고 씁니다.

파리 / 또아리 표준어 규정에는 이론적으로만 존재하거나, 사전에서만 밝혀져 있고 현실적으로 거의 쓰이지 않게 된 본말을 표준어에서 없애고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찮다'나 '온갖'은 원래 '귀치않다'와 '온가지'라는 말에서 각각 온 것이지만, '귀치않다'나 '온가지'라는 형태는 현실 언어에서 사라진 지 이미 오래됐기 때문에 '귀찮다'와 '온갖'을 표준어로 삼은 것입니다.

뱀이 여러 개의 원을 겹쳐 놓은 것처럼 몸을 말 때 '뱀리를 튄다'고 하는데 이 역시 '또아리'는 표준어가 아니고 준말인 '파리'가 표준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의 낱말이 여럿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우, 배암, 새양쥐'는 표준어가 아니고, 각각 '무, 뱀, 생쥐'가 표준어로 돼 있습니다. '무, 뱀' 등 두 음절이 한 음절로 된 말은 [무:], [뱀:] 처럼 대개 긴소리로 발음합니다.

낱말 맞추기 _ 퀴즈를 풀며 정확한 표현을 익혀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피하거나 쫓겨 달아남
- 한방에서 쓰는 약. 풀뿌리, 열매, 나무껍질 따위가 주요 약재이다.
- 액체 화장품의 하나. 향료를 알코올 따위에 풀어 만든다.
-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나라의 주권이나 이권을 남의 나라에 팔아먹음
- 상품에 일정한 값을 매김. 또는 그 값
- 죄를 용서해 형벌을 면제함
- 두 물체가 서로 닿아 비벼짐. 또는 그렇게 함
- 나무를 많이 심고 아껴 가꾸도록 권장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정한 날. 4월 5일이다.
- 오래도록 살
- 마음에 꼭 맞지 아니하여 발칵 역정을 내는 짓
- 날마다 그날그날 겪은 일이나 생각, 느낌 따위를 적는 개인의 기록

- 사람
- 얼굴이나 몸에 난 수염이나 잔털을 깎음
- 이빨에 독이 있어 독액을 분비하는 뱀
- 주로 혈거나 굵은 데에 붙이는 끈끈한 약
- 고향을 그리워하는 내용의 노래
- 하나의 전체로서 통일적인 연관성을 지닌 한국의 역사
- 군사작전에 필요한 자료를 얻으려고 적의 정세나 지형을 살피는 일
- 손과 팔이 잇닿은 부분
- 면(面)의 행정을 맡아보는 으뜸 직위에 있는 사람. 또는 그 직위
- 예수의 어머니
- 음식을 먹은 뒤에 몸이 나른해지고 졸음이 오는 증상
- 월요일을 기준으로 한 주의 마지막 날
- 궁중에서, 임금에게 올리는 밥상을 높여 이르던 말

▶ 오른쪽 방향 열쇠

- 가냘프고 고운 여자의 손을 이르는 말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산에 있는 큰 바위. 백제가 망할 때 삼천 궁녀가 이 바위에서 백마강에 몸을 던져 죽었다는 전설이 있다.
- 국수를 증기로 익히고 기름에 튀겨서 말린 즉석식품. 가루수프를 따로 넣는다.
- 장독 따위를 놓아두려고 뜰 안에 좀 높직하게 만들어 놓은 곳
-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애를 태움

▶ 아래쪽 방향 열쇠

-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
- 수영하면서 놀거나 수영 경기 따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강감찬 장군의 출생지.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진 날 장군이 태어났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 또는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 4월호 정답

	대	조	선	족	보		
속	보	선		쌀	자	루	
	름	소	뚫	기			
공	고		뚫	배	기	돌	
무	향	로		상	아	탑	
원	수		황	대			
			연	하	장	생	수
이	모	두	군	계	일	학	
	자	부	부				

‘명량’ ‘광해’ 촬영지로 이름난 부안 백합과 젓갈의 본고장 바다를 느끼게 하는 맛



부안에서는 다양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다.

전북 부안군은 영화와 TV 드라마 촬영지로 이름난 곳이다. 최근 국내 영화 흥행 기록을 갈아치운 ‘명량’은 2013년에 부안 전라좌수영 세트장에서 촬영했다. ‘관상’, ‘광해, 왕이 된 남자’ 등도 부안에서 촬영했다. 부안이 전통 사극 촬영지로 주목받는 것은 영상 테마파크, 석불산 영상 랜드, 전라좌수영 세트장 등 다양한 세트장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들 세트장은 역사적인 고증을 거쳐 경복궁과 창덕궁 같은 왕궁, 조선시대 관아와 성곽, 저잣거리, 전통 가옥 등을 재현했다.

여기에 수려한 풍광의 국립공원 변산반도와 서해, 넓은 들과 바다에서 나오는 풍성한 특산품도 장점이다. 빼어난 자연경관과 풍성한 먹을거리로 ‘생거부안(生居扶安)’을 자처한다. 부안은 어느 곳보다 먹을거리가 풍부한 여행지이다. 특히 백합 요리와 바지락죽, 곰소의 젓갈정식과 꽃게장, 청호저수지의 붕어찜, 위도의 굴과 새우, 계절 별미인 주꾸미와 전어 등 다양한 음식이 군침을 돌게 한다.

향긋한 바다 향의 백합 요리

백합은 전남 영광에서 서해안을 따라 북한 지역까지 갯벌 속에 지천으로 널려 있다. 그래도 백합 요리로 가장 유명한 곳은 역시 부안이다. 부안 주민들은 전북 다음으로 백합을 꼽고, 조선 시대에는 궁궐에 진상까지 했다고 한다.

백합은 회, 찜, 탕, 구이, 죽 등으로 맛볼 수 있다. 어느 것이나 맛있지만 그중 최고를 꼽는다면 신선한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회이다. 납작하게 썬 풋고추와 마늘을 속살 위에 올리고 초고추장에 살짝 찍어 먹으면 향긋한 냄새가 입안 가득 퍼진다.



고즈넉한 풍경의 곰소염전

▶ 부안영상테마파크



조선 중기의 왕궁, 사대부 가옥, 한방촌, 도자기촌, 공방촌, 시전 거리 등을 조성해 놓은 사극 종합 촬영장이다.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뿌리 깊은 나무', '해를 품은 달' 과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 등이 촬영됐다. 활터에서 활을 쓰거나 촬영 의상을 입고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다. 다양한 공예품을 감상·체험하고 구입할 수 있는 전북공예명품관도 들어서 있다.

문의: 부안영상테마파크 063-583-0976

www.buanpark.com

▶ 부안군 여행 정보



• 당일 여행 코스

신석정 문학관과 고택 → 매창 이계생의 시와 묘로 꾸며진 매창공원 → 새만금 홍보관 → 내소사 → 부안청자박물관

• 관련 웹사이트

부안군청 www.buan.go.kr
 새만금 홍보 <http://isaemangeum.co.kr>
 부안청자박물관 www.buancela.go.kr

• 대중교통 : 버스

동서울 터미널 → 부안(4시간 소요)
 강남 터미널 → 부안(3시간 10분 소요)

• 식당정보

백합식당(변산) 063-584-7467
 당산마루(부안·한정식) 063-581-1626



백합찜



백합탕

은박지로 백합을 싸서 구워내는 구이는 또 다른 풍미를 선사한다. 밝은 주황빛과 흰 빛의 백합 속살을 젓가락으로 집어 올려,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쫄깃하게 씹히면서 은은한 향기가 후각을 자극한다.

짬은 아귀찜과 비슷하다. 콩나물, 미나리, 양파, 버섯, 당근, 풋고추 등을 넣어 얼큰 하면서도 감치는 맛이 일품이다. 또 뽀얀 국물에 백합이 입을 벌린 백합탕은 진하면서도 얼큰한 맛이 좋으며, 백합 향이 깊게 밴 죽도 군침을 돌게 한다.

바다를 머금은 젓갈정식과 바지락죽

곰소염전에서서는 우리나라 최고 품질의 소금이 생산된다. 이곳 젓갈이 유명한 이유도 곰소의 좋은 소금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곰소항 인근 식당에 가면 창난젓, 명란젓, 황석어젓, 오징어젓, 낙지젓, 갈치속젓, 꼴뚜기젓, 바지락젓 등 9~13가지 젓갈이 다양한 찬과 함께 나오는 젓갈정식을 맛볼 수 있다.

노릇하게 구운 김에 뜨끈한 밥 한 숟가락을 얹고 젓갈을 올려 먹으면 입안 가득 침이 고인다. 밥 한 숟가락에 젓갈 하나씩 얹어 먹으면 순식간에 밥 한 공기 가 비게 된다.

이곳 젓갈은 숙성도와 양념을 넣는 손맛 때문에 식당마다 맛이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어느 식당에 가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독특한 감칠맛을 느낄 수 있다.



뽕잎 바지락죽

바지락죽도 부안을 대표하는 먹을거리다. 변산반도에서 채취되는 자연산 바지락을 이용하는데 쌀과 녹두에 당근, 파, 마늘 등을 넣어 끓여 낸다. 특히 뽕잎 바지락죽은 뽕잎을 갈아 넣어 건강에도 그만이다. 양도 넉넉해 한 그릇을 비우고 나면 포만감을 느낄 수 있고, 바다와 뽕잎의 향기가 입안에 오래도록 남는다. **장**



젓갈정식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가자 모집

오는 11월 2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제18차 세계한인차세대대회에 참가할 동포를 모집합니다.

세계한인차세대대회는 세계 각국의 한인 차세대 인재를 고국으로 초청해 이들이 지도자로서 역량을 키우고 한국 사회와 접점을 넓히도록 분야별 포럼, 유명 인사 강연, 문화 체험 등의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25~45세 동포를 대상으로 거주국에서 쌓은 분야별 업적,



한인 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기준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19일(한국시간 기준) 재외공관을 통해 참가 신청을 마감하며, 결과는 7월 초 확정됩니다.

참가 희망자는 전화(☎82-2-3415-0174)나 이메일(jyung@okf.or.kr)로 문의하고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orean.net 또는 www.okf.or.kr)를 참조하세요.

주말한글학교 교사 맞춤형 온라인 연수 지원 안내



해외 한글학교 교사 가운데 맞춤형 온라인 연수생을 선발합니다. 오는 6월 8일~8월 14일 서울대 평생교육원이 진행하며 한국어, 한국 문학, 전통·대중 문화, 아동 심리 상담 등에 관한 내용을 강의할 예정입니다. 모집 정원은 175명이고 수강비 46만 원 가운데 수강생이 11만 원을 부담합니다. 한글학교 재직 경력이 6개월 이상이며 인터넷 수강이 가능한 교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수강 희망자는 오는 5월 14일까지 거주국 공관을 통해 동포재단에 신청하면 되며 최종합격자는 코리아넷이나 스터디 코리아 홈페이지 또는 공관 및 개별 전자우편으로 통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korean.net)를 참조하거나 전화(☎82-2-3415-0160), 이메일(windyjs19@okf.or.kr)로 문의바랍니다.

“재외동포 이야기 담아 UCC 응모하세요”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2015 재외동포재단 UCC 공모전’을 연다. ‘역사 속 재외동포’ ‘자랑스러운 재외동포’ ‘통일과 재외동포’ 등 재외동포 관련 내용을 담아 1~3분 분량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내국인과 재외동포 모두 응모할 수 있다. 오는 7월 31일까지 코리아넷(www.korean.net)에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뒤 9월 18일까지 동영상을 내면 된다. 수상작에는 최우수상 200만 원 등 상금과 상장을 준다.

문의는 전화(☎02-3415-0093)나 이메일(akw1011@okf.or.kr)로 하면 된다.

동포사회 생생한 소식을 기다립니다

한인사회의 다양한 소식(한인회, 상공회, 한글학교 행사 등)과 이민의 애환이나 널리 알리고픈 미담 등을 보내주시면 게재해서 고국과 전 세계 한인사회에 전하겠습니다. 자랑할 만한 소식, 미담, 성공적인 행사 등 이모저모를 전해주세요.

원고 보낼 곳(원고 A4 한 장 이내) :

wakaru@yna.co.kr / shaorong@okf.or.kr



“이민으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그 힘은 700만 재외동포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세계 70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